

1주차

개요 - 젠더의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 바라보기

김 지 민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젠더 관점의 역사 해석

- 젠더와 젠더 관점
- 젠더 관점의 역사 해석
- 젠더사 관점의 현재성

02. 젠더사 연구의 추이

- 여성사 연구의 세 단계
- 한국의 여성사 및 젠더사 연구

03. 강의의 개요

- 강의의 초점
- 강의의 구성과 내용

04.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 조선시대와 여성
- 혼인과 친족관계의 변화
- 여성 표상의 변화 - ‘한부’와 ‘열녀’

05.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2

- 한글을 통한 여성들의 감정 표현
- 사례1. 원이 엄마의 편지
- 사례2. 여성들의 민사소송 자료

학습목차

학습목표

- 전근대사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 조선시대 가족과 사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조선시대 전기와 후기에 나타나는 여성들의 모습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조선시대와 여성
- 혼인과 친족관계의 변화
- 여성 표상의 변화 - ‘한부’와 ‘열녀’

4차시

한국 전근대사에 대한 여성사적 해석 1

조선시대와 여성



신윤복
잠옷 입은 여인

‘조선시대 여성’에 대한 이미지

-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 ‘정절’, ‘남성에 순종하는 여성’
- ‘전근대=여성억압’, ‘근대=여성해방’이라는 선입견

여성의 지위 변화의 역사

- 고려시대, 조선 전기, 조선 후기를 거치면서
변화한 여성의 지위
- 조선 후기로 갈수록 강화된 가부장권

조선 양반층

- 공무와 정치, 사상과 학문을 주도한 조선 사회의 지배 계층
- 나라의 근간이 된 ‘신유학’ 사상
- 삼강(三綱)[충(忠), 효(孝), 열(烈)]의 중시

‘남자’와 ‘여자’의 개념

- 하늘과 땅, 양(陽)과 음(陰)
- 서로 조화를 이루고 공존하는 ‘자연 현상’과 같은 관계



담락연첩 (1747)
월성 이씨 집안의 잔치를 묘사한 그림

성리학의 영향

- 여성의 욕망을 경계하고 남녀가 상하관계로 규정되는 변화
- 여성에게 새로운 사회질서에 부응하는 행동양식을 요구

혼인과 친족관계의 변화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

- 혼인과 가족 내에서 여성의 권리가 비교적 낮지 않음
- 기본적으로는 남성중심적 사회

조선 전기까지 여성의 삶

- 혼인과 가족관계의 중요성이 높음
- 가족 관계와 친족 제도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

혼인제도의 차이와 변화

- 중국
 - 고대부터 혼인 후 여자가 남편 집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
- 고려시대
 - 혼인 후에도 친정에 살다가 나중에 남편 집으로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의 풍습

- 처가에서 혼례식을 올리고 처가에 사는 풍습
- 조선 전기까지 유지
- 여성은 며느리보다 친정의 딸로서의 정체성이 강함



김홍도 <신행길> (18세기 후반)

조선 전기까지 재산관리와 상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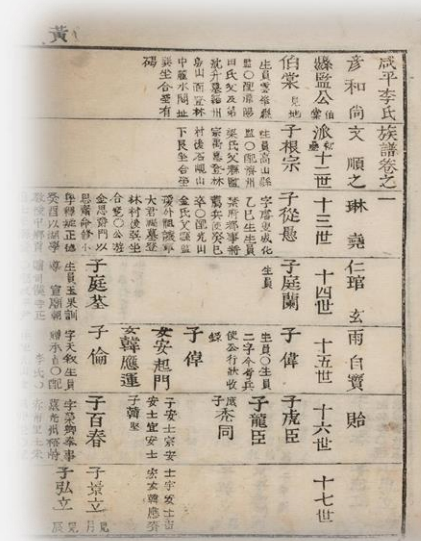
- 아들과 딸의 균등한 재산 상속
- 제사를 이어받는 자녀에게는 상속분의 1/5을 더해 줌
- 16세기(조선 전기)까지도 흔한 ‘자녀 균분 상속’

조선 전기까지 재산관리와 상속

- 혼인 후에도 여성의 재산을 남편이나 시가에 귀속시키지 않고 따로 소유
- 여성이 자녀 없이 죽을 경우 재산은 친정으로 귀속
- 제사는 아들과 딸이 공동으로 돌아가면서 (때로는 외손이) 맡음

조선 전기까지의 족보

- 아들과 딸 구분없이 출생 순서대로 이름 기재
- 딸의 자녀들도 기재



함평이씨 족보

신사임당

- 조선시대 대표적인 ‘현모양처’의 표본이라는 이미지
- 혼인 후 친정과 강한 유대, ‘딸’의 정체성
- 친정과의 유대를 바탕으로 그림 등에 꾸준히 전념



신사임당 <초충도> (16세기)

조선 후기 혼인 풍속의 변화

- 17세기 즈음부터 성리학의 강화
- 남과 여, 왕과 신하, 아버지와 자녀, 양반과 천민 - 위계와 신분에 맞는 행동 강조
- 국가의 주도로 부계와 부권 중심
- 시가 중심의 혼인 및 가족 관계 장려

조선 후기 혼인제도의 변화

- 여자가 혼인 후 친정에 거주하는 기간 감소
- 17세기부터 ‘남귀여가혼’이 줄고 시가 거주 비율 증가 – ‘시집간다’
- ‘딸’보다 ‘며느리’의 정체성 강화

조선 후기 종법제도

- 부계 중심으로 재산상속과 제사 계승을 규정
- 재산상속이 아들, 특히 맏아들 우대로 변화
- 딸이 친정에서 멀어지게 되는 현상

조선 후기 양반들의 재산상속

- 소수의 자녀에게 상속해 재산을 집중시키는 것을 선호
- 토지는 주로 아들, 특히 맏아들에게 상속

물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장자(맏아들)의 권위가 확립된 조선 후기

부계 질서 강화

여성 표상의 변화

‘한부’와 ‘열녀’

조선 시대 대조적인 여성 표상

한부(悍婦)

조선 전기

열녀(烈女)

조선 후기

조선 전기의 ‘한부(悍婦)’

- 혼인 후에도 부부가 처가에서 살았던
 풍습을 배경으로 함
- 처가와 부인의 영향력이 컸던 시대적 배경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정효상(鄭孝常)은 미천한 집안의 출신으로
괴과(魁科)에 발탁이 되자 기씨(奇氏)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의 집은 상당히 재산이 많았으며, 아내의 성격은 교만스럽고 사나와서,
정효상을 대하기를 노예(奴隸)처럼 하여 손발도 제대로 놀릴 수 없게 하였다.
그리고 그 장모는 더욱 성격이 사나와서 때로는 정효상에게 매질까지 하였다.”

성종실록 41권 (성종 5년(1474) 4월 28일 임오 4번째 기사)
_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웹사이트

[박윤창의 아내 귀덕이] “노비(奴婢)를 원수처럼 미워했는데,
집에 사내종[奴] 하나가 있어 조금 장대(壯大)하고 아름다와,
귀덕이 사랑하여 부리었다.

여종[婢]이 하나 있어, ‘귀덕이 사내종과 더불어 사통(私通)했다.’고
발설(發說)하니, 귀덕이 즉시 그 모자(母子)를 때려 죽였는데
일이 발각되어 갇히게 되었다.”

“...귀덕은 본디부터 성질이 사납고 모질음이 비할 데가 없어
박윤창(朴允昌)을 위협하고 억눌러서 종처럼 부리었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5월 19일 신사 3번째 기사)
_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웹사이트

박윤창은 한쪽 눈이 애꾸가 되었는데, 새로 집을 지으면서
개와를 덮고 겨우 일을 마치자 박윤창이 아내와 더불어 창문[窓牖]을 둘 곳을
의논하다가 뜻이 합하지 않으니, 귀덕(貴德)이 박윤창을 욕하기를,
“애꾸눈 놈아, 애꾸눈 놈아, 네가 일을 아는가?”
하고는, 손에 장대[長竿]를 잡고 처마 기와를 때려 부수면서 말하기를,
“네가 이미 나의 뜻을 거슬렀으니, 이런 집은 지어서 무엇하랴!”
하고는, 당실(堂室)과 창벽(窓壁)을 때려 부수어 남김이 없었으니,
그 성질이 사납고 모질음이 이와 같았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5월 19일 신사 3번째 기사)
_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웹사이트

“그의 아내는 서씨(徐氏)인데, 성질이 사나웠으며,
가정일은 모두가 서씨가 하자는 대로 했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

성종실록 41권 (성종 5년(1474) 4월 28일 임오 3번째 기사)
_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웹사이트

‘한부’에 대한 기록

- 여성의 영향력이 비교적 컸던 조선 전기에 자주 등장
-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지나면서 점차 사라짐

조선 후기의 ‘열녀’

- 가부장제가 강화된 시대적 배경
- 열녀, 남편이 죽은 뒤 개가할 수 있음에도 개가하지 않은 여자
- 중국 전국시대부터 존재한 개념

전근대 사회에서 여성의 재가

- 여성이 적극적인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구조
- 여성은 남편이 죽은 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유로 재가
- 고려시대 기록에는 여성의 재혼 사례가 많이 등장

재가녀자손금고법 (再嫁女子孫禁錮法)

- 《경국대전》의 〈예전〉
 - ‘재가한 사족 부녀의 자손은 관리로 등용하지 않는다’
 - 조항 삽입에 대한 조선 전기 조정의 논쟁

‘과부의 재가 금지 조치’에 대한 조정의 논쟁

- 궁극적으로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를 지향한 조선
- 부계질서의 혼란을 막는 예방 조치로서 ‘열녀’ 개념이 중요해짐

가부장제 사회에서 열녀는 왜 중요한가?

- 남편 사후 여성의 재혼은 전남편 자식들의 거취와
소속 문제를 발생시킴
- 부계적 가족제도 정착을 위한 국가의 조치

과부의 재가 금지 조치

- 과거제도는 양반의 신분 유지에 결정적인 요소
- 양반 여성을 중심으로 사회적인 효과

국가의 유학사상 권장 (충, 효)

- 백성이 유학사상을 내면화하고 그것을 지켰을 때 자부심을 느끼도록 함
- 백성의 ‘자발적 순종’
- 자발적 동의를 한 ‘열녀’들의 등장

열녀 개념의 강화

- 17세기 이후 재가하지 않는 과부들이 흔해짐
- 열녀는 ‘남편이 죽은 후 따라 죽는 여자’라는
의미로 극단화



향토유적이위열녀목비각
(원주시 소초면, 1887)

‘열녀문’과 ‘열녀전’

- 성리학적 가치가 최고로 인정받던 조선 후기
- 남편을 따라 자결한 열녀는
최고의 도덕적 존재로 추앙

열녀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 조선 후기 유교 이데올로기에 의해
수동적으로 희생당한 여성인가?
- 당시 사회구조 안에서 현실에 대처하는
전략을 택한 여성인가?

열녀에 대한 새로운 해석

- ‘열녀 되기’, 당시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최고의 자아실현 혹은 자기표현의 수단
- 조선 전기 ‘한부’와 조선 후기 ‘열녀’의 공통점?

[출처01] 한국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원 (신윤복 “장옷입은 여인“)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13216653&menuNo=200018>

[출처02] e뮤지엄(<https://www.emuseum.go.kr/>),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소장품번호: 민속 39649)

[출처03] e뮤지엄(<https://www.emuseum.go.kr/>),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소장품번호: 본관 6504-19)

[출처04] e뮤지엄(<https://www.emuseum.go.kr/>),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소장품번호: 족보 200)

[출처05] e뮤지엄(<https://www.emuseum.go.kr/>),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소장품번호: 신수 3550)

[출처06] 강원도청 (향토유적이위열녀목비각)

<https://www.kogl.or.kr/recommend/recommendDivView.do?atcUrl=keyword&recommendIdx=8545>

[출처07] e뮤지엄(<https://www.emuseum.go.kr/>),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소장품번호: 한구 6112)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K-MOC

기획·조정

이화진·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